

“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구원의 조건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구원받은 이들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앙을 만난다. 마치 고난을 위해 난 존재처럼 우리는 재앙으로부터 항상 안전하지 못하다. 재앙은 재앙을 받는 이의 과오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은 잘못이 없었다. 일본의 쓰나미, 미국 남부지방의 허리케인, 파키스탄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이나 독재자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과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죄없다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어떤 재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앙이 오기도 한다. 여기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은 강도에 의해 고통을 당하였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인간이다. 세상엔 평화에 길들여진 야생동물처럼 복종할 줄 아는 이가 있다. 그러나 알콜 중독자와 같은 미치광이 낭비족, 잔인성, 거만함, 억압, 거짓말, 몰인정한 이들도 있다. 무죄한 자들이 다른 이의 죄의 결과로 고통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동정심의 자극을 받는다. 부모가 주정뱅이가 되고 도박꾼이 되어 굶어서 고통 당하는 아이들,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 고용주의 착취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날 불한당 만난 저 북한 주민의 실정은 어떠한가?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는 5만여 명이 하루 옥수수죽 한 그릇, 소금 한 숟갈로 배를 채우고 14시간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고통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가. 뱀이나 쥐를 잡아먹으면 최고로 운 좋은 날이라 한다. 그곳에서 견디다 못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이가 계속 늘고 있지만 잡혀서 복송되면 총알이 아까워서 교수형이나 돌팔매질로 처형되는 곳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휴전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까,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의 참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희망이 전무한 상태였다. 세상엔 고통을 스스로 넘어서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게으름이나 탐욕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을 살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기고에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오늘의 북한 주민처럼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피의 길이라는 별명이 붙은 여기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 떼가 속출하는 곳이다. 오늘의 북한 체제가 바로 피의 길이다. 그런 체제 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억압과 굶주림과 박탈감을 갖고 계속 살아야 한다. 누가 이들의 고난의 사슬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입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치부하고 자신이 돕기보다 주님이 필요할 때 도우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 상처를 치료도 해주고 도와 줄 것이라 치부했다. 쓰러진 사람을 잘못 만지다가 종교적, 법률적, 도덕적 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못 본 체하고 지나가 버렸다. 골치 아픈 일은 상관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같은 사건을 두고 마음이 아파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를 도왔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낚시 바늘에 코를 꿰어 북한으로 끌려가는 저들의 복송을 저지하고 북한 구원 위해 이제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 당하는 이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라면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온 세상이 함께 이를 저지하는 일에 궤기해야 할 때다.

-한국장로신문 [1340호] 2012년 10월 20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The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Doxology
*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 W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6:16-24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Walks on the Water" Pastor
* Hymn	542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교사 강아금·주현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훈쿠아 망, 당,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베에, 미용, 차, 짜우, 마카벨(미얀마) 필리몬, 프란산토,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준(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 출 23:14-19, 요 15:6, 딤후 4:15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예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고전 5:7). 하나님은 누룩, 곧 죄가 묻은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나?

1. 진보를 보여야 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딤후 4:15).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엢 4:15).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믿음의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감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하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이었던 사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믿음의 진보, 사랑의 진보, 소망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2. 열매를 보여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 3:10). 하나님은 최초로 거둔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신실한 삶은 곧 전도로 이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식, 지혜, 건강, 재물, 가족, 명예 등 모든 것에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감사덕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에 넘치는 후대를 받았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찌 다했만 하나님 앞에 후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는 것마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3. 정성을 보여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하나님께 서는 마음과 몸과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성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기도입니다. 한 주일의 첫 열매는 성수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맺는 말
 2017년 맥추감사주일을 맞으며, 첫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 전도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 물질,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보여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윤희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홍일성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4:18-19 인 도 자
 찬 송 43(57) 다 함 께
 기 도 박상훈 집사
 성 경 계 3:14-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 설 교 자
 * 찬 송 214(34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권소희 권사
 성 경 벧전 2:13-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예수님의 의도성... 안명준 목사
 * 찬 송 Hymn 204(379)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영연·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레레렘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드릴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것으로 삼지 말지니라(출 23:19)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 배 및 집 회 시 간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선교회, 전도회 연합 월례회 / 9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2. 정기당회 / 12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 실
3. 16교구 연합다락방 / 14일(금) 오전11시30분 흑다우(남서울상가 2층)
4. 스데반회 교회 지하주차장 물청소 / 제1, 2권사회 1, 2층(본당) 대청소 / 15일(토) 오전9시 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예비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1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5.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6.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7.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9.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0. 의료 상담 / 김봉배(외과, 통증클리닉), 오병호(피부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1.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안명준 목사 소개 중앙대 졸업(B.A) 합신신대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M. 남아공 Preforia대학교 Ph.D.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43명	262명	265명	1,470명	151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 2일	헌금 입금	62,122,000	
"	특별 예배비		63,650
"	찬양운영비		5,940,000
"	교회학교운영비		1,050,000
"	선교비		900,000
"	행사비		570,000
"	출판비		1,580,000
"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309,250
"	교통비		70,000
"	차량유지비		50,000
"	복리후생비		79,500
"	수도광열비		4,520
"	수선유지비		90,000
"	식당운영비		949,000
"	합 계	62,122,000	11,655,920